

패션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사회적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Ⅱ)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유 흥 식* · 황 선 진**

동양대학교 디지털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hanges of Social Meaning of Androgynous Image in Fashion Magazine(Ⅱ)

-Focused Fashion Design Element-

Hong-Sik Yoo* · Sun-Jin Hwang**

Full-time Instructor, Dept. of Digital Fashion Design, Dong Y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 Kyun Kwan University**

(2003. 4. 2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women's fashion with the design elements(silhouette, material, color, detail and trimming) of androgynous image which has appeared on our specialized fashion magazine from 1986 through 2000.

As a result of this study I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1. The box silhouette led the market in the first stage of mid 1980. The wool and leather with the masculine image, cotton and soft material with unisex image were used to express the androgynous image. The dark and mono tone with the masculine image were used a lot in color. In women's fashion the minimalism style with simple image was expressed escaping from the decoration, in which the detail and trimming was not found as in men's wear.

2. It showed that more and more feminine image was accepted in the second stage of early 1990. Women's wear silhouette with the androgynous image has changed from masculine box silhouette boomed in the first stage to hourglass silhouette and slim silhouette. The wool and leather were used a lot as the materials in the first stage but the usage of the cotton with unisex image and soft texture were getting increased. The main colors were the black and the blue but the usage of the white and the red were on the increase showing the range of the use was extending. In the meantime, the detail and trimming were hardly used like in the first stage.

3. In the third stage of the late 1990, the silhouette has changed to slim style. The wool and leather were mainly used as the materials but the cotton and silk were on the increase showing that the materials of the feminine image were used in the women's fashion with the androgynous image as well as the materials of masculine image. In color, the black and the white of the masculine image were used increasingly by the effect of the minimalism and the usage of the colors were various for the rising frequency of the trend colors usage.

Key words : Androgynous(양성성), Feminine(여성성), Masculine(남성성)

I. 서론

성에 따른 의복차이는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수세기 동안 서양의 문화권에서의 의복규범으로 여성은 치마 남성은 바지로 구별되어져왔다. 그러나 성 역할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여성들의 복장에 간소화, 남성화를 촉진시켰다.

최근 우리나라 패션산업에서도 사회 환경과 성 역할의 변화에 따라 의복으로 나타나는 양성성이 모호해졌으며 유니섹스화로 인해 바지가 여성복에 있어서 중요한 의복 품목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최근의 성과 의복의 관련연구들은 양성이미지의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미적코드와 관련된 연구(정현숙·정홍숙, 1997; 김경옥·금기숙, 1998; 채수진·김혜연, 1999; 이경후·양숙희, 1999)¹⁾²⁾³⁾⁴⁾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양성이미지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과 예측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후반 현대복식에 다양하게 등장한 양성이미지의 배경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실증적으로는 1986년부터 2000년까지 패션전문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복식의 화보를 통해 양성이미지의 의복의 디자인요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종단적 내용분석(longitudinal content analysis)은 향후 우리나라 패션산업에 주요한 트렌드로 부각되는 양성이미지의 의복을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실루엣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소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소재의 질감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4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색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5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색채의 톤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6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디테일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7 :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트림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성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 문화적인 성(gender)으로 나뉘어진다. Sex는 선천적인 성(female/male)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로 언급되는 반면 gender는 후천적인 성(feminine/masculine)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재구성된 것이다(Eicher & Roach-Higging, 1992; Butler, 1999)⁵⁾⁶⁾. 여기에는 스스로 남자 또는

여자로서 지각하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주위에서 기대하고 자기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성 역할(gender role)의 개념이 포함된다.

Barnes & Eicher(1992)⁷⁾는 복식을 통한 성의 구분과 지위의 상징은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오래되고 보편화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수세기 동안 지탱해온 사회적 통념들은 여러 요인에 의해 허물어지게 되어 양면성을 띄게 되며 그 중 가장 보편적인 요소로 여겨왔던 전통적인 성 역할의 변화는 양성이미지 복식의 출현 기반이 되었다(Davis, 1992; Baudrillard, 1981)⁸⁾⁹⁾.

성 역할에 대해 연구한 Bem(1974)¹⁰⁾은 성 역할의 모델을 남성성(masculine), 여성성(feminine) 그리고 양성성(androgyne)과 미분화(undifferentiated)의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하고 있다.

의복에서 남향성과 여향성을 음양(陰-陽)의 개념으로 본 사람은 Northrup(1928)¹¹⁾으로 음양(陰-陽)은 의상디자인과 외모의 특징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이다. 양(陽)은 강인함, 딱딱함, 박력 그리고 지구력 등과 같은 남성적인 특징으로 의복에서는 직선적이고 장식(detail, trimming)이 적으며 큰 무늬, 대담한 색상과 강한 대비, 무겁고 거칠고 딱딱한 질감 등을 의미한다. 음(陰)은 섬세함, 부드러움, 온화함, 연약함, 우아함, 예민함 등과 같은 여성적인 특징으로 의복에서는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과 윤곽선, 작은 세부적인 장식, 대비가 심하지 않은 밝은 색상, 부드러우며 얇고 하늘하늘한 질감 등을 의미한다(McJimsey, 1963; Morton, 1964. 강혜원, 1996 재인용)¹²⁾.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따라서 특정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복식은 변화하는 성 역할(sex-role)과 사회적 역할(social-role)에 의해 그 의미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성 범주의 주요한 단서가 되는 의복은 각 시대마다 독특한 양식과 가치가 반영된 성 역할에 대한 상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전문잡지의 화보에 나타난 양성이미지 의복의 디자인요소 변화와 사회적 의미변화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표적이 명확하고 (2)복식의 표현력과 전달력이 높은 패션전문잡지를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패션전문잡지의 선정 기준은 (1)발행연도가 연속성이 있으며 (2)발행 부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3)패션전문잡지로서의 컨셉(concept)이 유사한 “멋”과 “ELLE KOREA”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연구 범위는 “멋”은 1986년 1월호부터 1992년 12월호까지, “ELLE KOREA”는 1993년 1월호부터 2000년 12월호까지로 하였다. 표집 방법은 매년 4권씩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집되어 멋의 경우는 총 28권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ELLE KOREA”는 총 32권이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되었다. 이 두 잡지의 계절적인 편차를 줄이기 위해 봄(3, 4, 5월호), 여름(6, 7, 8월호), 가을(9, 10, 11월호), 겨울(12, 1, 2월호)이 골고루 표본에 선정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상의는 멋 457건, ELLE KOREA 345건 총 802건이며 하의는 멋 406건, ELLE KOREA 312건 총 718건이다.

2. 분석유목

표집자료의 분석에 적용된 양성이미지 의복의 디자인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유목은 크게 실루엣, 소재, 색채, 디테일, 트리밍의 5가지로 나누었으며 이들 항목은 유송옥(1976)¹³⁾의 복식의장학, Davis(1980)¹⁴⁾의 Visual Design in Dress, 이호정(2000)¹⁵⁾의 패션 머천다이징, 이선재(2000)¹⁶⁾의 의상학의 이해, 김문숙(2000)¹⁷⁾의 패션과 색채, 김학성(2000)¹⁸⁾의 디자인을 위한 색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분류하였다.

첫째, 실루엣(silhouette)은 착용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의복의 외곽선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유행변화의 기본이 된다.

1) 실루엣

- ① 아우어글래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
- ② 슬림 실루엣(slim silhouette)
- ③ 와이 실루엣(y-silhouette)
- ④ 박스 실루엣(box silhouette)
- ⑤ 기타로 분류하였다.

슬림 실루엣은 넓은 의미에서의 박스 실루엣에 속하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트렌드에서 볼 수 있는 의복의 윤곽선이 신체선과 거의 가까운 날씬한 실루엣인 실린더(cylinder) 실루엣/펜슬(pencil) 실루엣을 슬림 실루엣으로 분류하면서(패션디자인 용어 순화집, 1999)¹⁹⁾ 이를 슬림(slim) 실루엣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의복에서의 소재와 질감은 우리의 접촉감각과 연관되는 디자인 요소이다. 따라서 소재와 소재의 질감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2) 소재

(1) 소재(상의/하의)

- ① 면(cotton) ② 마(linen)
- ③ 모(wool) ④ 견(silk)
- ⑤ 합섬(synthetic) ⑥ 모피(fur)
- ⑦ 피혁(leather) ⑧ 기타

(2) 소재의 질감(상의/하의)

- ① 부드럽다.(실키한, 드레이프성이 있는, 하늘하늘한)
- ② 얇고 비쳐 보인다.(얇은, 비치는)
- ③ 광택이 있다.(광택이 있는, 촉촉한, 매끈한)
- ④ 두껍고 딱딱하다.(두껍고 뻣뻣하다. 두껍고 부피가 있다)
- ⑤ 거칠다.(보풀이 있는, 까칠까칠한, 표면효과가 있는)

- ⑥ 부드럽고 광택이 있다.
- ⑦ 두껍고 부드럽다.(부피가 있다)
- ⑧ 얇고 딱딱하다. ⑨ 두껍고 거칠다.
- ⑩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 질감
- ⑪ 기타

셋째, 본 연구에서의 색상은 여성복 색채 예측에서 주로 사용되는 색채와 먼셀(Munsell)의 색입체의 5가지의 기본색 赤(R: red), 黃(Y: yellow), 綠(G: green), 靑(B: blue), 紫(P: purple)과 이들의 중간색인 주황(YR: yellow red), 황록(GY: green yellow), 청록(BG: blue green), 청자(PB: purple blue), 자주(RP: red purple) 그리고 갈색(brown), 흰색(white), 검정(black), 회색(gray), 혼합색(multi), 검정과 흰색의 단도를 첨가하여 분석유목을 정리하였다.

색채 톤의 변인은 유송옥(1976)의 복식의장학, 김학성(2000)의 디자인을 위한 색채의 분류를 기준으로 비비드 톤(브라이트b, 스트롱s, 비비드v), 파스텔 톤(페일p, 라이트 그레이시lg, 라이트lt), 다크 톤(그레이시g, 다크 그레이시dkg, 덜d, 다크dk, 딥dp), 모노 톤(흰색, 검정)으로 분류하였다.

3) 색채

(1) 색채(상의/하의)

- ① 빨강색 계열(red 계)
- ② 노랑색 계열(yellow 계)
- ③ 녹색 계열(green 계)
- ④ 청색 계열(blue 계)
- ⑤ 자주색 계열(purple 계)
- ⑥ 브라운색 계열(brown 계)
- ⑦ 흰색 계열(white 계)
- ⑧ 회색 계열(gray 계)
- ⑨ 검정색(black)
- ⑩ 검정색/흰색(black/white)
- ⑪ 혼합색(multi)

(2) 색채의 톤(상의/하의)

- ① 비비드 톤(vivid tone)
- ② 파스텔 톤(pastel tone)

- ③ 다크 톤(dark tone)
- ④ 모노 톤(mono tone)

넷째, 디테일이란 옷을 만드는 봉제과정에서 그 옷을 장식할 목적으로 이용된 세부장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래의 직물로 봉제과정에서 제작되는 장식을 의미한다.

4) 디테일(상의/하의)

- ① 셔링(shirring) ② 러플(ruffle)
- ③ 프릴(frill) ④ 퀴팅(quilting)
- ⑤ 아코디언 주머니(accordion pocket)
- ⑥ 디테일 없음 ⑦ 기타

다섯째, 트리밍은 끝 장식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식품 또는 그 외의 다른 재질로 만들어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의의 의미로 여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추와 지퍼 그리고 벨트 등도 트리밍으로 분류하였다.

5) 트리밍(상의/하의)

- ① 브레이드(braid) ② 비즈(bead)
- ③ 레이스(lace) ④ 스팅글(spangle)
- ⑤ 단추(button)
- ⑥ 아플리케(applique)
- ⑦ 지퍼장식(zipper) ⑧ 트리밍 없음
- ⑨ 기타

3. 신뢰도 및 분석방법

잡지를 통한 실증 분석의 객관성과 조사자간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 몇 1권(21건), ELLE 2권(57건)을 무작위로 표집한 3권(78건)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각 분석 항목에 대한 조사자간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10년 이상 실무 경력과 의상학과 강의 경력 10년 이상인 현직 디자이너 한 명, 5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의상학과 강의 경력 10년 이상의 강사 한 명 그리고 의상학과 출신의 대학원생 1명의 총 3명의 연구자가 같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를 비교하였다.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화보는 실루엣, 소재, 소재의 질감, 색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그러나 소재의 질감은 손으로 만져 보았을 때 질감 설명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화보 형태에서 소재의 질감 파악은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조사자들은 신뢰성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소재 자체가 주는 특성을 파악하고 많은 훈련이 이루어진 후에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루엣은 .90~.95, 상의의 소재, 색채, 디테일, 트리밍은 .89~.92, 하의의 소재, 색채, 디테일, 트리밍은 .90~.95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어 내용분석 조사원간의 내용분석 항목결과와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은 시기별 분석을 위해 편의상 3기로 제1기 : 1986년-1990년, 제2기 : 1991년-1995년, 제3기 : 1996년-2000년의 5년 단위로 나누어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처리 방법은 표집된 분석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과 χ^2 (Chi-Square)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0년까지 패션전문잡지의 화보에 나타난 양성이미지 복식의 디자인요소가 시대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의 결과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실루엣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IV-1>과 같으며 실루엣의 변화에는 시기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다($\chi^2=172.797$ df=10 p<.01).

1980년대 후반인 제1기에는 남성적 이미지를 나

타내는 박스 실루엣(47.8%)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성적 이미지의 아우어글래스 실루엣(19.0%), 남성적 이미지의 와이 실루엣(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스 실루엣과 와이 실루엣은 넓은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가장 남성적인 실루엣으로 이 시기의 여성복이 성공을 위한 의복(dress for success)을 지향했기 때문이라 사려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한 성 역할 변화에 따른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하여(Eicher & Roach-Higging, 1992)²⁰ 여성복에 남성복의 도입이 본격화됨을 시사한다. 제2기에는 전형적인 남성 실루엣인 박스 실루엣(31.4%)과 와이 실루엣(4.2%)은 감소한 반면, 아우어글래스 실루엣(30.1%)과 슬림 실루엣(28.9%)은 제1기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의 양성이미지 복식의 대표적인 실루엣인 박스 실루엣과 와이 실루엣의 남성성 지향에서 여성성 지향의 몸에 붙는(fit) 실루엣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인 제3기에는 슬림 실루엣(53.6%)이 제1기와 제2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반면 여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12.9%)은 감소하였으며 남성적 실루엣인 와이 실루엣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상징적인 모호성으로 표현되는 성에 기초한 패션테마 듀얼리즘과 젠더리스의 출현 영향으로 여겨진다. 유니섹스 룩과 구별되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 관계인 제3기의 실루엣의 특징은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섹시로 남성복은 페미니즘을, 여성복은 매니쉬함을 가미하여 전체적으로 슬림한 라인을 강조한 소프트하고 모던한 분위기로 양성적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

한 슬림 실루엣은 가슴, 허리, 힙을 강조하지 않는 그러나 몸에 꼭 맞는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모던 감각이 가미된 여성복에 있어서 대표적인 남성적 실루엣이 되었다. 그러나 남·녀 양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돈된 양성적 실루엣이다. 이는 채수진·김혜연(1999)의 주장처럼 앤드로지너스 룩은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으로 서로의 특징을 자유롭게 조화시킴으로써 양성 이미지 복식이 앞으로 계속 패션에 있어서 표현의 범위를 넓혀 보편적인 일상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소재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의와 하의에 나타난 소재를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표 IV-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상의: $\chi^2=66.131$ df=18 p<.01, 하의: $\chi^2=70.186$ df=16 p<.01).

1980년대 후반인 제1기를 살펴보면 상의에서의 소재는 모(50.0%)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면(15.2%), 피혁(7.7%), 마(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에서의 소재는 모(48.4%), 면(19.3%), 마(7.6%), 피혁(7.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의와 하의 모두에서 전통적인 남성적 소재인 모, 피혁, 마와 유니섹스 룩의 대표적인 소재인 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성적인 느낌의 소재는 여성복에 사용되어 양성적 이미지를 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한 실루엣(연구문제 1)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남성성 이미지의 박스

<표 IV-1>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실루엣

N(%)

실루엣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슬림 실루엣	와이 실루엣	박스 실루엣	기타	계
연대						
제1기(1986-1990)	68(19.0)	43(12.0)	64(17.9)	171(47.8)	12(3.4)	358(100.0)
제2기(1991-1995)	72(30.1)	69(28.9)	10(4.2)	75(31.4)	13(5.4)	239(100.0)
제3기(1996-2000)	25(12.9)	104(53.6)	0(0.0)	65(33.5)	0(0.0)	194(100.0)
계	165(20.9)	216(27.3)	74(9.4)	311(39.3)	25(3.2)	791(100.0)

$\chi^2= 172.797$ df=10 p<.01 *결측=11

실루엣, 와이 실루엣의 빈도가 높은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1990년대 초반인 제2기에서 소재는 상의에서는 모가 33.1%로 제1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합섬(11.7%)은 증가하였다. 하의 역시 상의와 마찬가지로 모(34.4%)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면(23.2%)과 합섬(15.2%) 그리고 견(7.6%)은 증가했다. 견과 합섬의 증가는 부드러운 실루엣을 나타내는 여성적인 이미지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려되며 특히 하의류에서의 면의 증가는 여성복에서의 양성이미지가 유니섹스 캐주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인 제3기를 살펴보면 상의의 소재는 모(38.0%), 면(15.0%)의 순이며 하의의 소재는 모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33.3%)은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제3기로 들어서면서 주목 할 만한 사항은 하의에서 모의 사용 증가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물세탁이 용이하고 형태보존성이 우수한 summer wool, cool wool 등이 개발되면서 봄 가을은 물론 여름철에도 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재들은 기능성과 실용적인 측면이 중요시되는 하의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사려 된다.

3. 연구문제 3의 결과

소재는 사용되는 재질(materials)에 의한 분류인 반면 소재의 질감(texture)은 짜여진 외관과 후 가공 처리 등의 심미적인 감각에 의한 분류이다.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상의와 하의에 나타난 소재의 질감을 살펴본 결과 소재의 질감 변화는 <표 IV-3>에서 보듯이 의미 있는 변화 추세를 볼 수 있다(상의; $\chi^2=134.911$ df=18 $p<.01$, 하의; $\chi^2=56.539$ df=18 $p<.01$).

1980년대 후반인 제1기의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상의에서는 부드러운 질감이 전체의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의에서도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가 전체의 58%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2기와 제3기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1980년대 이후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상의와 하의는 여성적 감성을 지닌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인 제2기 역시 상의에서는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57.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껍고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12.3%)는 증가한 반면 두껍고 딱딱한 질감의 소재(8.3%)는 감소하였다. 특히 제1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광택 있는 질감의 직물(2.6%)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 IV-2>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소재

N(%)

연대	의복품목 소재	상의								
		모	마	모피	피혁	면	견	합섬	기타	계
제1기(1986-1990)		181(50.0)	28(7.7)	4(1.1)	28(7.7)	55(15.2)	10(2.8)	16(4.4)	40(11.0)	362(100.0)
제2기(1991-1995)		79(33.1)	11(4.6)	4(1.7)	14(5.9)	35(14.6)	21(8.8)	28(11.7)	47(19.7)	239(100.0)
제3기(1996-2000)		76(38.0)	3(1.5)	6(3.0)	16(8.0)	30(15.0)	4(2.0)	21(10.5)	44(22.0)	200(100.0)
계		336(41.9)	42(5.2)	14(1.7)	58(7.2)	120(15.0)	35(4.4)	65(8.1)	131(16.4)	801(100.0)

$\chi^2=66.131$ df=18 $p<.01$ *결측=1

연대	의복품목 소재	하의								
		모	마	모피	피혁	면	견	합섬	기타	계
제1기(1986-1990)		153(48.4)	24(7.6)	1(0.3)	23(7.3)	61(19.3)	12(3.8)	15(4.7)	27(8.6)	316(100.0)
제2기(1991-1995)		77(34.4)	11(4.9)	0(0.0)	9(4.0)	52(23.2)	17(7.6)	34(15.2)	24(10.7)	224(100.0)
제3기(1996-2000)		88(50.6)	1(0.6)	0(0.0)	11(6.3)	58(33.3)	2(1.2)	8(4.6)	6(3.4)	174(100.0)
계		318(44.5)	36(5.0)	1(0.1)	43(6.0)	171(24.0)	31(4.3)	57(8.0)	57(7.9)	714(100.0)

$\chi^2=70.186$ df=16 $p<.01$ *결측=4

<표 IV-3>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소재의 질감

N(%)

연대	의복품목 소재의 질감	상의										
		두껍고 딱딱하다	두껍고 거칠다	거칠다	두껍고 부드럽다	얇고 딱딱하다	부드럽다	부드럽고 광택이 있다	광택이 있다	얇고 비쳐 보인다	두가지 이상의 복합적 질감	합 계
제1기 (1986-1990)		79(24.6)	28(8.7)	1(0.3)	33(10.3)	8(2.5)	166(51.7)	41(11.3)	0(0.0)	2(0.6)	4(1.2)	321(100.0)
제2기 (1991-1995)		19(8.3)	12(5.3)	2(0.9)	28(12.3)	7(3.1)	131(57.5)	11(4.6)	6(2.6)	9(3.9)	14(6.1)	228(100.0)
제3기 (1996-2000)		40(20.0)	0(0.0)	0(0.0)	1(0.5)	1(0.5)	131(65.5)	0(0.0)	8(4.0)	2(1.0)	17(8.5)	200(100.0)
계		138(18.4)	40(5.3)	3(0.4)	62(8.3)	16(2.1)	428(57.1)	52(6.5)	14(1.9)	13(1.7)	35(4.7)	801(100.0)

$\chi^2=134.911$ df=18 p<.01 *결측=1

연대	의복품목 소재의 질감	하의										
		두껍고 딱딱하다	두껍고 거칠다	거칠다	두껍고 부드럽다	얇고 딱딱하다	부드럽다	부드럽고 광택이 있다	광택이 있다	얇고 비쳐 보인다	두가지 이상의 복합적 질감	합 계
제1기 (1986-1990)		173(58.6)	10(3.4)	1(0.3)	17(5.8)	9(3.1)	173(58.6)	22(6.9)	0(0.0)	1(0.3)	5(1.7)	295(100.0)
제2기 (1991-1995)		123(56.9)	4(1.9)	0(0.0)	17(7.9)	5(2.3)	123(56.9)	6(2.7)	8(3.7)	7(3.2)	11(5.1)	216(100.0)
제3기 (1996-2000)		114(65.1)	0(0.0)	0(0.0)	0(0.0)	0(0.0)	114(65.1)	0(0.0)	3(1.7)	2(1.1)	9(5.1)	175(100.0)
계		410(59.8)	14(2.0)	1(0.1)	34(5.0)	14(2.0)	410(59.8)	28(3.9)	11(1.6)	10(1.5)	25(3.6)	686(100.0)

$\chi^2=56.539$ df=18 p<.01 *결측=4

<표 IV-4>양성이미지의 여성복 상의에 나타난 색채

N(%)

연대	의복품목 색채	상의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빨강색	핑크색	주황색	노랑색	황록색	녹색	청색	보라색	자주색
제1기(1986-1990)		6(1.7)	6(1.7)	10(2.8)	13(3.6)	20(5.6)	12(3.3)	44(12.3)	8(2.2)	2(0.6)
제2기(1991-1995)		15(6.3)	3(1.3)	3(1.3)	10(4.2)	10(4.2)	2(0.8)	29(12.2)	9(3.8)	2(0.8)
제3기(1996-2000)		6(3.0)	7(3.6)	2(1.0)	4(2.0)	6(3.0)	5(2.5)	14(7.1)	2(1.0)	2(1.0)
계		27(3.4)	16(2.0)	15(1.9)	27(3.4)	36(4.5)	19(2.4)	87(11.0)	19(2.4)	6(0.8)

연대	의복품목 색채	상의								
		brown		white		gray	black	bla/w	multi	계
		베이지	브라운	아이 보리	흰색	회색	검정색	검정색/ 흰색	혼합색	
제1기(1986-1990)		17(4.7)	56(15.6)	18(5.0)	21(5.8)	37(10.3)	52(14.5)	17(4.7)	20(5.6)	359(100.0)
제2기(1991-1995)		15(6.3)	21(8.9)	14(5.9)	24(10.1)	14(5.9)	32(13.5)	14(5.9)	20(8.4)	237(100.0)
제3기(1996-2000)		15(7.6)	7(3.6)	16(8.1)	31(15.7)	20(10.2)	50(25.4)	2(1.0)	8(4.1)	197(100.0)
계		47(5.9)	84(10.6)	48(6.1)	76(9.6)	71(9.0)	134(16.9)	33(4.2)	48(6.1)	793(100.0)

$\chi^2=63.798$ df=20 p<.01 *결측=9

경향은 제3기에도 계속되어 광택소재(4.0%)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 질감(8.5%) 소재는 적은 빈도 이기는 하나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제3

기의 상의에서도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는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65.5%), 하의 또한 부드러운 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5.1%). 제3기의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는 제1, 2기와는 다른 양성이미지의 특징인 심플 베이직 감각의 새로운 스타일로 스포티한 감각의 바디 피트 라인(body fit line)과 여유 있는 편안한 스타일(new relaxing style)의 양성적인 슬림 실루엣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려 된다. 이시기 남성들의 외모와 패션에 대한 관심 증가는 여성복의 소재에 영향을 받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특히 광택소재의 증가는 여성적인 이미지의 광택 소재가 남성복에 사용됨으로써 남성복의 양성화와 맥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4. 연구문제 4의 결과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상의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해본 결과는 <표 IV-4>와 같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63.798$ $df=20$ $p<.01$).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제1기의 상의에는 갈색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20.3%) 그 다음은 검정색(14.5%), 청색계열(12.3%), 회색계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2기에는 흰색계열(16.0%), 갈색계열(15.2%), 검정색(13.5%), 청색계열(12.2%) 등의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색조가 우세함을 보여 주며 흰색계열과 적색계열(7.6%)의 증가가 눈에 띈다. 제1기에 비해 갈색계열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색계열은 회색계열, 청색계열 그리고 검정색보다 더 캐주얼하고 대중적인 색으로 여겨짐에 따라 갈색계열은 여성복의 비즈니스 웨어에 적당한 색채로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도 그 활용도가 일반화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흰색계열은 다소 증가한 반면 회색계열은 감소하였고 청색계열은 여전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말 패션테마 에콜로지영향으로 부드러운 터치에 의한 내추럴한 외관과 기능성이 강조된 자연 친화적인 소재 텐셀(tencel)이 등장하면서 인디고(indigo) 칼라가 텐셀의 주 칼라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따뜻함을 느끼게 하며 생리적, 심리적으 로 느슨함과 여유를 주는 주황, 황색, 녹색, 황록색과 따뜻함이나 차거움을 느끼게 하지 않는 중성색

인 보라색은 제1, 2기 모두에 골고루 사용되고 있어 양성이미지 복식에 사용되는 색채가 다양해졌다.

1990년대 후반인 제3기에는 검정색(25.4%), 흰색계열(23.8%), 갈색계열(11.2%), 회색계열(10.2%)의 순으로 제3기는 제1, 2기에 비해 검정색과 흰색계열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차가운 도시의 남성적인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검정색과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미와 절제미를 완벽하게 추구하는 흰색계열이 제3기의 패션테마 미니멀리즘과 젠더리스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이렇듯 색채와 관련된 감정이나 색채의 성격은 자연과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양성이미지 복식에서 검정색, 갈색계열, 흰색계열, 청색계열, 회색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유행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며 다양하게 색채가 사용되어짐을 시사한다.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하의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해본 결과는 <표 IV-5>와 같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39.827$ $df=20$ $p<.01$).

제1기에는 검정색(22.8%), 갈색계열(21.2%), 청색계열(13.9%) 등의 순으로 남성적 이미지의 색채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제2기에는 검정색(20.5%), 청색계열(16.4%), 갈색계열(15.4%) 등의 순으로, 상의와 마찬가지로 제1기에 비해 청색계열은 증가하고 갈색계열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간색조의 부드러운 아이보리와 베이지는 약간 증가하여 색채의 톤이 밝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기에는 남성적 이미지의 검정색(27.0%)과 흰색계열(15.5%)의 증가가 눈에 띄며 갈색계열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13.2%).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의와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착장이 상의와 하의를 동일한 색조 또는 유사색으로 코디네이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연구문제 5의 결과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상의와 하의에 나타난 색채의 톤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상의:x

<표 IV-5>양성이미지의 여성복 하의에 나타난 색채

N(%)

의복품목 색채	하의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빨강색	핑크색	주황색	노랑색	황록색	녹색	청색	보라색	자주색
연대									
제1기(1986-1990)	6(1.9)	5(1.6)	6(1.9)	6(1.9)	11(3.5)	10(3.2)	44(13.9)	5(1.6)	3(0.9)
제2기(1991-1995)	9(4.1)	5(2.3)	3(1.4)	6(2.7)	8(3.6)	2(0.9)	36(16.4)	6(2.7)	2(0.9)
제3기(1996-2000)	5(2.9)	1(0.6)	1(0.6)	1(0.6)	4(2.3)	3(1.7)	26(17.9)	1(0.6)	4(2.3)
계	20(2.8)	11(1.5)	10(1.4)	13(1.8)	23(3.2)	15(2.1)	106(14.9)	12(1.7)	9(1.3)

의복품목 색채	하의								
	brown		white		gray	black	bla/w	multi	
	베이지	브라운	아이 보리	흰색	회색	검정색	검정/ 흰색	혼합색	계
연대									
제1기(1986-1990)	13(4.1)	54(17.1)	12(3.8)	23(7.3)	27(8.5)	72(22.8)	8(2.5)	0(0.0)	316(100.0)
제2기(1991-1995)	13(5.9)	21(9.5)	14(6.4)	14(6.4)	8(3.6)	45(20.5)	13(5.9)	1(0.5)	220(100.0)
제3기(1996-2000)	13(7.5)	10(5.7)	12(6.9)	15(8.6)	23(13.2)	47(27.0)	2(1.1)	1(0.6)	174(100.0)
계	39(5.5)	85(12.0)	38(5.4)	52(7.3)	58(8.2)	164(23.1)	23(3.2)	2(0.3)	710(100.0)

$\chi^2=39.827$ $df=20$ $p<.01$ *결측=8

<표 IV-6>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색채의 톤

N(%)

의복품목 색채의 톤	상의				
	비비드 톤	파스텔 톤	다크 톤	모노 톤	합계
연대					
제1기(1986-1990)	56(17.5)	64(20.0)	149(46.6)	51(15.9)	320(100.0)
제2기(1991-1995)	61(26.8)	52(22.8)	53(23.3)	62(27.2)	228(100.0)
제3기(1996-2000)	24(12.4)	42(21.6)	109(56.2)	19(9.8)	194(100.0)
계	141(19.0)	158(21.3)	311(41.9)	132(17.8)	742(100.0)

$\chi^2=61.545$ $df=6$ $p<.01$ *결측=60

의복품목 색채의 톤	하의				
	비비드 톤	파스텔 톤	다크 톤	모노 톤	합계
연대					
제1기(1986-1990)	44(16.2)	53(19.5)	113(41.5)	62(22.8)	272(100.0)
제2기(1991-1995)	42(20.9)	38(18.9)	61(30.3)	60(29.9)	201(100.0)
제3기(1996-2000)	15(9.0)	32(19.2)	100(59.9)	20(12.0)	167(100.0)
계	101(15.8)	123(19.2)	274(42.8)	142(22.2)	640(100.0)

$\chi^2=40.244$ $df=6$ $p<.01$ *결측=78

$\chi^2=61.545$ $df=6$ $p<.01$, 하의: $\chi^2=40.244$ $df=6$ $p<.01$).

상의에서는 1980년대 후반인 제1기에는 다크 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46.6%), 파스텔(20.0%), 비비드 톤(17.5%), 모노 톤(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2기로 가면서 다크 톤은 감소한 반면 모노 톤과 파스텔 톤, 비비드 톤은 증가하고 있어 색채의 톤이 다양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인 제3기에서는 다시 다크 톤이 증가하였으며(56.2%) 모노

톤과 비비드 톤이 감소하고 있어 극단적인 색채의 톤 사용이 줄어들고 중간 톤의 색채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의에서도 상의와 마찬가지로 제1기에서는 다크 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41.5%) 모노 톤(22.8%), 파스텔 톤(19.5%), 비비드 톤(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인 제2기에는 다크 톤(30.3%), 모노 톤(29.9%), 비비드 톤(20.9%), 파

스텔 톤(18.9%)의 순으로 제1기에 비해 비비드 톤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인 제3기에는 다크 톤이 전체의 반 이상인 5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노 톤과 비비드 톤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상의의 색채 톤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양성 이미지의 여성복에서의 색채의 톤이 전반적으로 남성적 이미지가 강한 모노 톤과 다크 톤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6. 연구문제 6의 결과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상의와 하의에 나타난 디테일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표 IV-7>에서 보듯이 상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상의: $x^2=28.377$ df=12 p<.01, 하의: $x^2=15.497$ df=10 N.S).

<표 IV-7>양성이미지 복식에 나타난 디테일

N(%)

연대	의복품목 디테일	상의							계
		셔링	러플	프릴	퀼팅	어코디언 주머니	디테일 없음	기타	
제1기(1986-1990년)		2(0.6)	0(0.0)	1(0.3)	5(1.4)	5(1.4)	339(93.4)	14(3.9)	363(100.0)
제2기(1991-1995년)		3(1.3)	2(0.8)	2(0.8)	6(2.5)	3(1.3)	204(85.4)	19(7.9)	239(100.0)
제3기(1996-2000년)		1(0.5)	1(0.5)	0(0.0)	8(4.0)	4(2.0)	185(92.5)	1(0.5)	200(100.0)
계		6(0.7)	3(0.4)	3(0.4)	19(2.4)	12(1.5)	728(90.7)	31(3.9)	802(100.0)

$x^2=28.377$ df=12 p<.01 *결측=0

연대	의복품목 디테일	하의							계
		셔링	러플	프릴	퀼팅	아코디언 주머니	디테일 없음	기타	
제1기(1986-1990년)		3(0.9)	0(0.0)	0(0.0)	2(0.6)	1(0.3)	295(92.5)	17(5.3)	318(100.0)
제2기(1991-1995년)		4(1.8)	0(0.0)	1(0.4)	1(0.4)	1(0.4)	202(89.8)	16(7.1)	225(100.0)
제3기(1996-2000년)		1(0.6)	0(0.0)	1(0.6)	0(0.0)	3(1.7)	168(96.0)	2(1.1)	175(100.0)
계		8(1.1)	0(0.0)	2(0.3)	3(0.4)	5(0.7)	665(92.6)	35(4.9)	718(100.0)

$x^2=15.497$ df=10 N.S *결측=0

<표 IV-7>에서 보듯이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은 일반 여성복에 비해 디테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기별로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인 제1, 2, 3기의 상의와 하의 모두 디테일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은 증가율이기는 하나 상의에서의 퀼팅(quilting)의 증가는 양

성이미지 디자인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퀼팅은 소재에 풍성함과 가벼움을 주어 캐주얼군은 물론 베이직한 정장류에도 많이 응용되는 기법으로 기능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양성이미지 복식에 적합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여성적 디테일인 프릴, 셔링, 러플 등은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반면 남성적 이미지의 아코디언 주머니는 상의와 하의 모두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다.

7. 연구문제 7의 결과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상의와 하의에 나타난 트리밍 변화를 분석한 결과 또한 <표 IV-8>에서 보듯이 시대에 따라 상의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하의에서는 디테일처럼 유의미한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상의: $x^2=46.856$ df=16 p<.01, 하의: $x^2=19.398$ df=16 N.S).

<표 IV-8>에서 살펴보면 디테일과 마찬가지로 상의와 하의 모두에서 트리밍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85%와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트리밍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시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1기의 상의에서는 단추장식

<표 IV-8>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트리밍

N(%)

연대	의복품목 트리밍	상의									
		브레이드	비즈	레이스	스팡글	아플리케	단추	지퍼장식	트리밍없음	기타	계
제1기(1986-1990년)		3(0.8)	1(0.3)	4(1.1)	0(0.0)	3(0.8)	13(3.6)	9(2.5)	316(87.1)	14(3.9)	363(100.0)
제2기(1991-1995년)		7(2.9)	1(0.4)	0(0.0)	1(0.4)	3(1.3)	16(6.7)	8(3.3)	192(80.3)	11(4.6)	239(100.0)
제3기(1996-2000년)		1(0.5)	2(1.0)	0(0.0)	5(2.5)	0(0.0)	2(1.0)	9(4.5)	181(90.5)	0(0.0)	200(100.0)
계		11(1.4)	4(0.5)	4(0.5)	6(0.7)	6(0.7)	31(3.9)	26(3.2)	689(85.9)	25(3.1)	802(100.0)

$\chi^2=46.856$ df=16 p<.01 *결측=0

연대	의복품목 트리밍	하의								
		브레이드	레이스	스팡글	아플리케	단추	지퍼장식	트리밍없음	기타	계
제1기(1986-1990년)		3(0.9)	2(0.6)	0(0.0)	3(0.9)	4(1.3)	2(0.6)	298(93.7)	6(1.9)	318(100.0)
제2기(1991-1995년)		5(2.2)	3(1.3)	1(0.4)	0(0.0)	2(0.9)	1(0.4)	209(92.9)	4(1.8)	225(100.0)
제3기(1996-2000년)		1(0.6)	0(0.0)	1(0.6)	0(0.0)	0(0.0)	4(2.3)	168(96.0)	1(0.6)	175(100.0)
계		9(1.3)	5(0.7)	2(0.3)	3(0.4)	6(0.8)	7(1.0)	675(94.0)	11(1.5)	718(100.0)

$\chi^2=19.398$ df=16 N.S *결측=0

(3.6%), 지퍼장식(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의에서는 단추장식(1.3%), 브레이드와 아플리케(0.9%), 지퍼장식, 레이스 트리밍이 각각 0.6%로 나타나 상의보다 하의에서 트리밍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2기의 상의에서는 단추장식(6.7%)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퍼장식과 브레이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에서는 브레이드(2.2%)와 레이스(1.3%)의 사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패션경향인 로맨틱시즘의 영향으로 정장류는 물론 캐주얼한 진 등에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트리밍의 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사려 된다. 제3기의 상의에서는 지퍼장식(4.5%)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스팅글(2.5%)과 비즈장식(1.0%)도 증가하였다. 하의에서도 남성적 이미지의 지퍼장식(2.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적 이미지의 브레이드와 스팅글(0.6%)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티한 감각의 지퍼장식 스타일(zipper up style)은 미니멀한 감각, 모던한 감각, 액티브한 감각에 사용되어 여성복에 있어서의 양성이미지는 상이한 개념이 믹스되는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스팅글과 비즈의 증가는 장식적인 트렌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바로코, 로코코 시대의 과장된 여성스러움이나 장식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럭셔리(luxury)

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스팅글과 비즈의 사용은 1990년대 말 패션 스타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듯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사용된 트리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디테일과 마찬가지로 트리밍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남성적 이미지의 지퍼장식이 주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로 들어와서는 브레이드, 비즈 등의 여성적 이미지의 트리밍이 남성적 이미지의 트리밍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성적 이미지의 여성복에 양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트리밍이 함께 사용됨으로써 이질적인 개념이 공존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복에 나타난 양성이미지 복식의 디자인 요소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어떤 형태로 표출되고 변화되었는가를 관련문헌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 패션전문 잡지에 나타난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을 내용 분석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인 제1기의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은 남성복 지향적 경향으로 박스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소재에 있어 남성적 이미지의 모, 유니섹스 이미지의 면과 부드러운 소재의 질감을 이용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했다. 색채에서는 남성적 이미지의 갈색계열과 다크 톤, 모노 톤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여성복에서도 장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남성복처럼 디테일과 트리밍이 거의 없는 심플한 이미지의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제1기의 이러한 현상들은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식 증가와 직업 중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제1기의 양성이미지 복식은 여성이 남성의 복식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 남성 지향적인 유니섹스 모드에 가까운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인 제2기는 제1기와 달리 여성적 이미지를 점차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성이미지의 여성복 실루엣도 제1기에 주를 이루었던 남성적인 박스 실루엣에서 아우어글래스 실루엣과 슬림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 소재는 제1기와 마찬가지로 남성적 이미지의 모, 유니섹스 이미지의 면과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가 더욱 증가하였다. 색채는 검정색과 청색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흰색계열과 적색계열의 사용도 증가하여 색채의 사용 폭이 넓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디테일과 트리밍은 제1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즉, 제2기로 들어서면서 양성이미지 복식은 남성과 동등해지기 위해 위계적인 권위나 전통 등에 의해 억눌려 있던 여성적 성향이 남성을 그대로 모방하려던 제1기에 비해 여성적인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여성복에서 개성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복은 여성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상대성의 장점을 도입한 특성 융합으로 양성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인 제3기에 이르러서는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이 양성적 이미지로 변화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성적 이미지의 복식 유형이 형성되었다. 즉 실루엣은 슬림한 형태의 실루엣으로 바뀌었

으며 소재는 모가 주를 이루며 면과 견 등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사용되는 소재가 남성적 이미지의 소재 뿐 만 아니라 여성적 이미지의 소재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색채는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남성적 이미지인 검정색과 흰색계열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트렌드 칼라의 사용 빈도도 증가하여 색채의 사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즉, 제3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은 성에 근거한 미적 요소나 원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여성이 주제적으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미에 비중을 더 두는 시기였다.

본 연구의 결과처럼 우리나라의 양성이미지의 여성복에 나타난 디자인요소 또한 양성이미지의 의복 품목, 장식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의 남성적 이미지에서 1990년대 초반의 여성적 이미지와 양성적 이미지로, 1990년대 후반은 양성적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비해 연구과정에 나타난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실증 연구에 사용된 잡지가 패션 전문잡지에 나타난 화보에 국한되어 양성적 이미지 복식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패션전문 잡지에 나타난 광고를 포함하거나 기타 신문 등의 다른 매체도 함께 조사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정현숙·정홍숙 (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 pp. 231-251.
- 2) 김경옥·금기숙 (1998). 현대패션에 나타난 엔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 pp. 239-261.
- 3) 채수진·김혜연 (1999).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엔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 pp. 203-224.
- 4) 이정후·양숙희 (1999).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Indeterminacy). 복식, 45, pp. 178-199.
- 5) Eicher, J. B., & Roach-Higgins, M. E. (1992).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ress: Implications for Analysis of Gender Roles*. in Barnes, R., & Eicher, J.

- B.(Eds.), *Dress and Gender: Making and Meaning in Cultural Contexts*. Lillington NC, p. 23.
- 6) Butler, J. (1999).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pp. 9-10.
 - 7) Barnes, R., & Eicher, J. B. (1992). *Dress and Gender: Making and Meaning in Cultural Contexts*. Lillington NC, pp. 1-2.
 - 8) Davis, F.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23.
 - 9) Baudrillard, J. (1981). *For a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 Trans. with intro. by C. Levin. St. Louis: Telos Press, p. 12.
 - 10)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2, pp. 155-162.
 - 11) 강혜원 (1996). 의상사회 심리학. 서울: 교문사, p. 214.
 - 12) McJimsey, H. T. (196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New York: Harper & Row. 강혜원 (1996).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p. 214-215. 재인용.
Morton, G. M. (1964). *The Art of Costume and Personal Appearance(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강혜원 (1996).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p. 214-215. 재인용.
 - 13) 유송옥 (1976). 복식의장학. 서울: 수학사, pp. 54-67.
 - 14) Davis, M. L. (1980). *Visual Design in Dres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p. 17-27, pp. 146-152.
 - 15) 이호정 (2000). 패션 머천다이징. 서울: 교학 연구사, p. 296.
 - 16) 이선재 (2000). 의상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pp. 224-225, pp. 236-250, pp. 254-258.
 - 17) 김문숙 (2000). 패션과 색채. 서울: 경춘사, pp. 41-62.
 - 18) 김학성 (2000). 디자인을 위한 색채. 서울: 조형사, pp. 46-77.
 - 19) 문화공보부 (1999). 패션디자인 용어 순화집. 서울: 계문사, p. 109.
 - 20) Eicher, J. B., & Roach-Higgins, M. E.(1992).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Dress: Implications for Analysis of Gender Roles*, in Barnes, R., & Eicher, J. B.(Eds.), *Dress and Gender: Making and Meaning in Cultural Contexts*. Lillington NC, p. 20.